

는 날마다 그의 미모를 극찬하는 드라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그의 미모는 그의 미모를 극찬하는 드라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그의 미모는 그의 미모를 극찬하는 드라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그의 미모는 그의 미모를 극찬하는 드라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그의 미모는 그의 미모를 극찬하는 드라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II

III

미술계라는 곳에 어설프게나마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란 생각보다 넓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다만 ‘미술계’라 명명하는 큰 세포의 덩어리가 자기 유지를 위한 연료를 공급받거나 ‘미술계’라는 세포가 다른 세포

I

‘한국의 헌법은 헌법이 아닙니다’

양을 위한 원료 자체가 되는 경우 혹은 미술계 세포가 기능하는 교차로의 지점, 그러면 이로서 구성되는 상위 범주 체계의 장기(臟器)들을 생각할 때, '(한국) 술세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미묘한 지점에 대한 의미-시각의 율을 미세하게 조절해 나갈 때에 관찰 가능한 세포의 형태와 크기, 분열된 포들이 새로이 조합되며 생성하는 패턴의 형상은 우리가 만화경을 들여다 볼 때의 것과 같았다. 하나의 이야기를 분절하는 행위의 의미 크기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에 한 평가 부문에서 큰 발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정도이기도 하면서, 정반대로에 따라 그 행위를 통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에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섭리를 권력의 획득과 상실 구조에 대유해 붙이고저는 덧말은, 몇몇 사람들은 미술계의 시스템을 오롯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를 실제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정치판의 생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언제 모든한을 모두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곧상'이자, '세상'이 곧 '나'를 통해 자기 존재를 반영(mirroring)한다는 공식, 이러한식의 통용은 미술계에 속해 있는 많은 종사자들의 역할 및 책임과 연관되어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인이 반(半)공인이라고 인식되는 혹은 인식되어야만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대화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나는 로컬(local) 미술계에 내가 진입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복기해 보았다. 이로써 나는 최소한 내가 경험했던 수은 대화들의 방향성이나 뉘앙스(nuance), 양상의 일정한 흐름 위에 재탄생해 볼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나의 감지나 자각 그리고 일종의 텐화(patternisation) 방법론을 확인하고, 소위 이를 자기 참조(self-referencing)하면서, 제는 허락된 '이후'를 위한 각주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2015년 9월 즈음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좀 더 깊숙이 돌이켜보면 때는 이 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혼돈의 시발점을 이미 살짝 나친 뒤였던 듯하다. 사람들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거의 모든 기준들에 하여 거침없는 비판의 채찍을 휘두른 뒤에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는 누구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레이어들(players)의 거친 호흡을 따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당시의 광경은 과거 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행해졌던 검투사 경기와 비슷한 것이어서, 한 명의 선수가 기접전을 벌이는 형식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느슨한 결투의 대상을 가지고

I

‘한국의 헌법은 헌법이 아닙니다’

대다로써 검을 겨누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게 보였다.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로의 관계에 있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거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으며, 때문에 모두가 권모술수에 능통해거나 적어도 사전에 상대방이 펼치는 수법에 대해 언제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라는 단어의 전적 의미를 적극 차용해 가면서 이른바 수퍼-에고(super-ego)적 정체성을 당시 고의 가치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남는 그 때의 법이었다. 당연하게도 본래 이런 세태를 살아내기에 적합한 정체성을 지니고 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금새 주목을 받는 위치로 급격히 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현상을 그저 시류(時流)인 마냥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 스멀거리는 이상한 부자연스러움 문이었다.

IV

화 예술계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는 순간은 많은 부분 겹쳐있고, 그 곳에  
리하는 사람들의 구성 또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호 간에  
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림잡아 누가 누구인지 정도는 몇 회 정도 전시  
프닝 등의 행사에 들리다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다. 원체 성격이  
성적인 편이라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점차 나도  
몇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었던 다른 이들을 만나게  
기회들이 가끔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한  
은 본래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불편한 낯섦을  
세워 상대방 또한 자연스럽게 나에게 굳이 먼저 접근할 틈을 보이지 않도록 했다.  
처럼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인해 이방인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선점했던 나는  
째로 온라인 상에서 SNS를 통해 사람들과 느슨하게 소통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국 무명씨(無名氏, an unknown person)는 범주 내에서 도태된다. 명예의 권력화는  
러한 설정으로부터 빨발한 것이 아닐까. 누구도 양치기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려가는 양 떼 속에서 선두 무리에 속하려 하거나 중간 즈음에서 다수의 양들을  
끄는 (듯 보이는) 양치기 견이 되고 싶어는 했었던 것 같다. 담배 한 대 정도를  
유는 그 짙은 순간에 사람들은 서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맷음이 가져다주는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대하여 재빠르게  
파악하고 반응 혹은 대처하면서 스스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미 그 과정에 꽤나  
익숙해져 있는 듯 보였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와 자아가 만나고  
소통하는 지점에서 자아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드러내 보인 후 내 주변의 타인과  
진정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주변적인  
요소, 즉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떠한 관계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려는 태도가 어렵잖하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나는 관계에서 빨발하는 이러한 징후로부터 많은 감지들을 내적으로 자기 확인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스스로의 심지각(心知覺, a nental perception)을 통해 징후의 편린들을 재조합해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관계'의 최소항으로부터 그것이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나아가 세계와 자아 사이 관계로의 확장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선 위에서 나의 기억은 많은 것을 재조작하거나 재정립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수집된 기억'-이는 어느 기점에 나를 휘감았던 내 외적 느낌과 이로부터 발로(發露)하는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며,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금 재정립 또는 재조작될 나의 기억을 대포하는 것-에 다시금 접속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서술된 기억에 새로이 달리는 나의 내주 혹은 각주들은 총체적이고 종합된 기억의 파편들이 이루는 결합 지점을 다시금 확인토록 기능하기도 하고, 이에 더해 그 결합의 지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써 당대의 (뉘앙스에 가까웠던) 현상들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나는 이 때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을 불현듯 잡아냈었고, 내 모든 의심은 시작되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 냉철하고도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기를 서슴치 않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을지라도, 지나치게 영리한 방식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천의 매뉴얼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고, 증명하고, 배포하는 태도는 미술에 있어 존재 가능한 열린 형식을 상실토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쩌면 진부한 태도로 일상적 사건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상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냉정한 판단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행자적 신조가 혼란스러움을 조장하는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잠깐의 고요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